

2015 광주일보 신춘문에 시·소설·동화 1256편 응모

# 절망의 시대 ... 문학 열정은 식지 않았다

한국 문단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2015 광주일보 신춘문에 심사가 완료됐다. 올해 응모작은 모두 1256편. 분야별로 시 1003편, 소설 122편, 동화 131편으로 예년과 비슷한 수준의 응모 현황을 보였다.

대체로 개인의 인생사나 딱딱한 현실을 고발하는 내용이 많아 예비 작가들이 거대 담론보다는 미시적인 부분에 관심을 두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올해는 세월호 참사, 경주 마우나리조트 붕괴사고, 장성 노인 요양원 화재, 판교 환풍기 추락 사고 등 사회적 공분을 일으켰던 대형 사건·사고가 많았지만 이를 작품으로 형상화한 경우는 거의 없었다.

대형 사건이 문학작품으로 연계되기까지는 일정 기간이 경과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본격적인 형상화를 전망하기는 다소 이르다는 견해다. 그럼에도 대형 사고는 많은 이들에게 트라우마를 남긴다는 측면에서 문학적 형상화의 부재는 다소 아쉬운 대목으로 일컫는다.

예년 수준의 응모현황에도 불구하고 투고자 연령층과 이들의 거주지는 다양한 분포를 보였다. 특히 70대 노년층 응모자들이 눈에 띄게 늘었고 서울, 인천을 비롯한 수도권과 부산 등 영남지역 문인들의 투고도 많았다. 그만큼 문학 수용자의 저변이 넓고 많은 이들의 관심 사항이라는 점을 방증한다.

매년 신춘문에 응모작을 받아보면 눈에 띄는 투고자들이 많다. 이번에도 예외가 아닐 만큼 개성적인 원고들이 넘쳐났다. 직접 원고지에 작품을 써서 보낸 응모자들도 있었고, 매 작품마다 인적사항을 기록해 보낸 원고도 적지 않았다. 서류 파일에 일일이 철을 한 작품, 수형 생활을 하는 가운데서도 보내온 작품 등에서는 문학에 대한 순수한 열정을 확인할 수 있었다.



22일 광주일보 편집국 회의실에서 진행된 2015 신춘문에 심사. 왼쪽부터 함정임 소설가, 안도현 시인, 김옥에 동화작가. /최현배기자skypark@kwangju.co.kr

## 전국 각지서 폭넓게 응모... 20~30대 크게 늘어 거대 담론보다 고달픈 인생사·딱딱한 현실 고발

괄목할 만한 점은 20대와 30대 응모가 늘었다는 점이다. 젊은 층 관심이 늘었다는 긍정적인 의미에도 불구하고 작품 경향이 지극히 사적이고 미시적이라는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수년째 이어지는 이 같은 흐름은 작금의 문학 위축 현상과도 무관치 않다. 문인들이 공동체 문제나 이슈보다는 개인사적인 부분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심사위원들은 일정 수준을 갖춘 응모작들이 많았지만, "이것이"라고 눈길을 확 끄는 작품은 없었다는 견해다. 소소한 일상을 다루고 있지만 형상화와 기법 측면에서 투고자들의 목소리가 개성적이면서도 미학적으로 반영되지 못했다는 의미다.

소설 부문에서는 취업난 등 고달픈 현실의 이면을 드러낸 다양한 소재가 주를 이루었다. 몇 년 전만 해도 판타지나 상상현실을 다룬 작품들이 많았지만 올해는 현저하게 줄었다. 함정임 작가는 "고령화 사회, 노동문제, 노인문제를 다룬 작품이 많았고 현실을 자기의 관점으로 풀어낸 작품들이 많았다"면서도 "아쉽게도 소수자의 문제를 깊이 있는 시각으로 전착한 작품은 보기 드물었다"고 평했다.

시 부문에서는 예년과 달리 응모작들의 수준이 다소 높아진 것으로 드러났다. 그에 비해 실험적인 작품이나 신춘문에 취지에 맞는 기발한 상상력이 발휘된 작품은 드물었다는 평이다. 안도현

시인은 "공허하고 현학적인 관념 대신 삶에 밀착된 언어로 구현한 작품이 다수 늘어난 것은 고무적인 반면, 이를 정지하면서도 미학적으로 형상화한 작품은 많지 않았다"고 말했다.

동화 부문은 대체로 다문화가정과 고령화 사회를 다룬 작품들이 많았다. 우리 사회의 가족 구성이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는 얘기다. 특히 올해는 반려 동물을 소재로 한 작품이 대폭 늘어난 점도 특징으로 꼽힌다. 김옥에 동화작가는 "참신한 소재보다 상투적이고 소소한 일상을 그린 이야기가 의외로 많았다"며 "동화 또한 전개상 갈등부라도 중요한데 간과한 작품이 많았고, 무엇보다 독자를 사로잡을 수 있는 개성적인 캐릭터의 부재는 아쉬운 대목"이라고 평했다.

한편 당선작은 2015년 1월 1일자 광주일보 지면을 통해 발표되며, 시상식은 2015년 1월 중순 열린다. /박성천기자skypark@kwangju.co.kr

## 전남시문학상에 김홍식·박일훈·김혜경 시인

전남시인협회가 주관하는 전남시문학상에 김홍식, 박일훈, 김혜경 시인이 선정됐다. 수상작은 각각 '금성산 타잔의 노래', '영산강 아리랑', '물고기 눈물'.



심사위원회는 "김홍식 시인은 '금성산 타잔의 노래'를 통해 자연과 고향에 대한 향수를 서정적으로 형상화했으며 박일훈 시인은 '영산강 아리랑'에서 역사의식과 휴머니티가 잘 조화된 작품을 선보였다"고 밝혔다. 문의 010-5473-0085. /박성천기자skypark@kwangju.co.kr

## 담양대담미술관 30일 '방석음악회'

### 싱어송라이터 김보경 출연

담양 대담미술관(관장 정희남)이 2014년을 마무리하고 2015년 희망찬 한해를 기원하며 올해 마지막 '문화가 있는 날'인 30일 오후 7시 '2014대담미술관 방석음악회'를 개최한다.

이날 초대게스트는 싱어송라이터 김보경이다. 김보경은 지난 2010년 케이블 TV 오디션 프로그램인 슈퍼스타K2에 출연해 Top11 선정 및 핫이슈상을 받았다. 당시 'Because Of You'를 불러 '한국의 켈리 클락슨'이라는 별칭을 얻기도 했다.

이후 MBC 드라마 '역전의 여왕' OST 'I GO', KBS 드라마 '씨티헌터' OST 'Suddenly', KBS 드라마 '학교' OST '혼자라고 생각말기', KBS 드라마 '비밀' OST '그때로 가고 싶다' 등을 불러 화제를 모았다. 앨범으로는 'Rockin'과 싱글 '사랑 끝', 'Start Up' 등이 있다. 입장료 1만원. 문의 061-381-0082. /김경민기자kki@kwangju.co.kr



김보경

## '광산문화예회관 공연장상주단체 프로그램' 전국 최우수상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워크숍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주최한 15개 광역시·도 '2014지역협력형사업 성과 공유 워크숍'에서 광주문화재단의 '광산문화예회관 공연장상주단체 프로그램' 지원사업이 전국 최우수상을 받았다.

광산문화예회관은 그동안 열악한 재정과 미흡한 장비 등으로 행사장 역할만 했으나 2012년부터 광주문화재단 지역협력형사업에 선정됐다. 이번 지역협력형사업으로 1억8000만

원을 지원받은 광산문화예회관은 광주여성필하모니오케스트라, 전통문화연구회 열수, 그린발레단을 상주·비상주단체로 하는 등 전문 공연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광주여성필하모니는 지역주민을 위한 가족오케스트라를 운영하고 울산에서 열린 '전국 공연장상주단체 페스티벌'에 초청됐다. 전통문화연구회 열수의 난버벌 타악뮤지컬 '몽키즈'는 독특한 아이디어와 작품성을 인정받고 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 '액티브시니어 전통음식 특별강좌' 50~60대 남성 수강생 모집

광주문화재단 전통문화관(대표이사 서영진)은 '제6기 액티브시니어 전통음식 특별강좌'를 위한 50~60대 중·장년 남성 수강생을 모집한다. 이번 특별강좌는 남성들에게 젊은 마인드, 새로운 방식으로 세상과 소통하는 방법과 남도향토음식 문화 전승을 위해 기획됐다. 오는 2015년 1월 8일 개강해 매주 목요일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총 7주 동안 진행하며 수강료 7만원이다.

광주시지정무형문화재 제17호 남도의례음식장 최영자 선생이 강사로 진행하는 이번 강좌는 향토음식 '광주오미'가 주제다. '광주오미'는 오리탕, 남도한정식(젓갈), 송정떡갈비, 김치, 무등산보리밥으로 이외에 파래자반무침, 도토리묵무침, 낙지호롱 등 12가지로 구성돼 있다. 수강생은 직접 보리밥 만들기, 김치 담그기 등을 음식장인에게 비법을 전수받아 배우는 특별한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수강생은 이달 31일까지 전화 혹은 방문접수로 선착순 20명을 모집한다. 문의 062-232-1501.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 아이디어 이 피었습니다!

- 홍보지 및 판촉물
- 각종 인쇄물
- 전단지
- 상패
- 현수막
- 각종 인쇄물
- 상패
- 전단지
- 홍보지 및 판촉물

 왕인문화기획

Tel. (061)471-1717~1718  
Fax. (061)471-1719  
E-mail. ansqudtjs12@hanmail.net

